

상환금 부담 ↓ ‘개인워크아웃’... 빠른 변제 ‘개인회생’

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중〉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빠르고 성실변제면 삭제

개인회생

상환기간 짧아 변제액 많아질수도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커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그 외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 되지 않고, 개인파산은 추후 신용회복이 더디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 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법원)
지원 대상	·1곳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 보유 ·연체일 90일 이상 경과시 접수 가능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지원 내용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금융회사 손실처리상각채권 중 최대 70% 원금감면(취약계층 90%)	최대 3년간 가용소득 상환 투입 후 잔여채무 면책
상환 비용	5만원(별도 추가비용 없음)	변호사 수임비 120~200만원
상환 기간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취약계층 10년 이내)	최장 3년
장점	이자와 원금 감면	·대출 연체 상관없이 신청가능 ·변제기간 이후 잔여채무 모두 감면
단점	·연체 90일 동안 독촉 및 추심 지속 ·접수 전까지 법적조치 가능성 높음(급여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 경매) ·신용회복 변제 시작 후 24개월 이후	·신용회복 변제기간 끝나는 시점(최대 36개월 이후) ·가용소득 전액 상환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자료=신용회복위원회·회생법원

명) 대비 10%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 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

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이내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내달 출시 전망

이통사 망 연동 테스트중 기존 제기된 문제 해결해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다음 달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에 갤럭시 폴드를 제공, 망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고 다음 달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 연동 테스트는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검사로 보통 출시 한 달~한 달 반 전에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문제를 보완한 제품에 대해 각국에서 전파인증

미국 리뷰어를 통해 제기된 화면 보호막 문제와 힌지 내 이물질 유입 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버전은 화면 보호막이 베젤 끝까지 딱 맞게 붙어있지 않아 손톱으로 뜯을 수 있는 틈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보호막을 사용자가 떼어낼 수 없도록

등인하기를 새로 받아야 해서 아직 출시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아예 끝부분을 본체 속으로 집어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힌지 부위 노출 부분도 최소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힌지의 상·하단 부분이 기존 스마트폰처럼 프레임으로 막혀있지 않아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이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디스플레이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 3사에 갤럭시 폴드 개선 전 제품을 지급해 망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느 제품 출시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갤럭시 폴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

금융사 대출심사 관행 점검 취약차주 부실위험 막는다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 도입 예정

정부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관행을 점검한다. 취약 연체차주를 위한 지원과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를 진행해 연체율의 상승을 제한하고, 경기민감도에 따른 저신용자의 대출부실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 유형과 업권간 연계성을 분석해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4분기(0.7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여신전문업권의 연체율은 각각 1.57%, 3.15%로 다른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유형별로는 여신전문업권의 오토론과 카드대출이 연체율을 견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1분기 0.75%로 전분기(0.63%)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 개인사업자 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출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를 진행해달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와 운영실적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상각채무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나누리 기자

LG화학, 볼보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

LG화학이 볼보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LG화학은 볼보자동차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은 모듈형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는 볼보와 볼보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의 차세대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모듈형 플랫폼은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차체 뼈대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개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그룹은 현재 소형차 전용 모듈형 플랫폼 ‘CMA’를 활용하고 있고, 2020년대 초 차세대 중대형 전기차 모델이 쓰이는 모듈형 플랫폼 ‘SPA2’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볼보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신차는 전기차로 출시하고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바 있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LG화학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